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numbers

vol. 344 | 2026.7.28.

청소년 혐오 표현 실태

교사 10명 중 9명,
‘학생들의 혐오 표현’ 경험!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소득 공백
2.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 후 취업 실태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교사 10명 중 9명,
‘학생들의 혐오 표현’ 경험!

혐오 표현은 더 이상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만의 언어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52%)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성인 국민 3명 중 2명(65%)은 최근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가 온라인 공간을 넘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혐오의 일상화는 학교 교실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전교조)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89%)이 최근 1년간 학생들의 혐오·역사왜곡 표현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응답했다. 혐오 표현은 사적인 대화를 넘어 수업과 과제 발표 자료 등 공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논란, 민원 우려 등으로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혐오 표현에 ‘항상 대응한다’는 교사는 14%에 불과했다. 문제의 심각성(80% 이상)에 대한 높은 인식과 실제 대응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넘버즈 344호〉에서는 사회 전반에 침투한 혐오 표현의 실태부터 교실 현장의 청소년들이 처한 위기, 그리고 현장지도의 한계까지 다각도 분석한다. 자극적인 혐오 언어에 무감각해진 청소년 세대를 온전한 언어와 공감의 길로 이끌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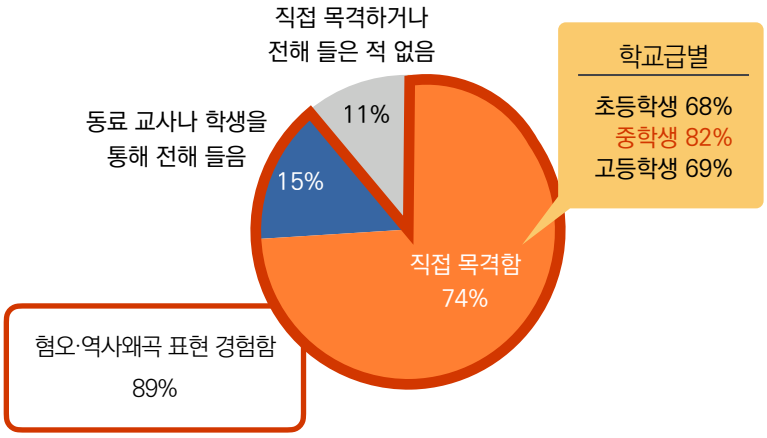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청소년 혐오 표현 실태]

교사 10명 중 9명, '학생들의 혐오·역사왜곡 표현' 경험!

- 학교 내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 실태를 살펴본다. 최근 1년간 학생들의 발언, 발표 등에서 혐오 · 역사왜곡 표현을 접한 경험을 물은 결과, 교사 대다수인 89%가 직접 목격(74%) 또는 동료 교사 · 학생을 통해 전해 들은 것(15%)으로 나타났다. 이는 혐오 표현 문제가 학교 현장에 깊숙이 침투해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특히 '직접 목격했다'는 응답을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중학생(82%)이 초등학생(68%)이나 고등학생(6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학생 집단에서 학생들의 혐오 표현 노출 및 사용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림] 최근 1년간 학생들의 혐오·역사왜곡 표현 접한 경험 (교사, N=1,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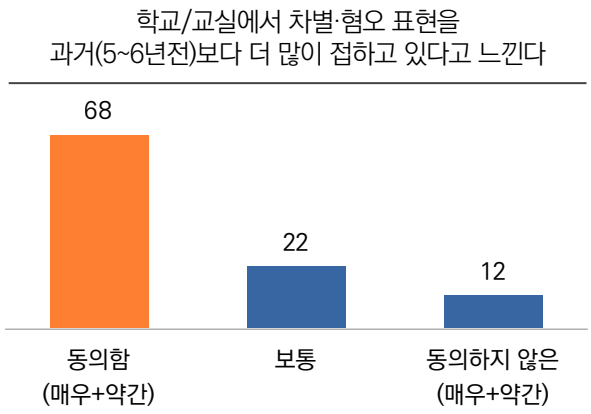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 · 역사왜곡 표현 교사 ·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6~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교사 68%, 5~6년 전보다 교실 내 혐오 표현 늘었다!

- 또 다른 보고서인 '청소년 혐오 표현 대응 인식-실행 간극 해소 방안 연구'를 통해 혐오 표현 증가 체감도를 살펴본다. 교사들에게 5~6년 전 과거 대비 학교/교실에서 혐오 표현을 더 많이 접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교사 10명 중 7명에 달하는 68%가 '그렇다(매우+약간 동의)'고 응답했고,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이는 교실 내 혐오 표현 양상이 과거에 비해 한층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6년 전 대비 혐오 표현 증가 체감도 (교사, N=200, %)



※출처 : 한국다양성연구소, '청소년 혐오 표현 대응 인식-실행 간극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 2025.11.01.(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5.07.11.~0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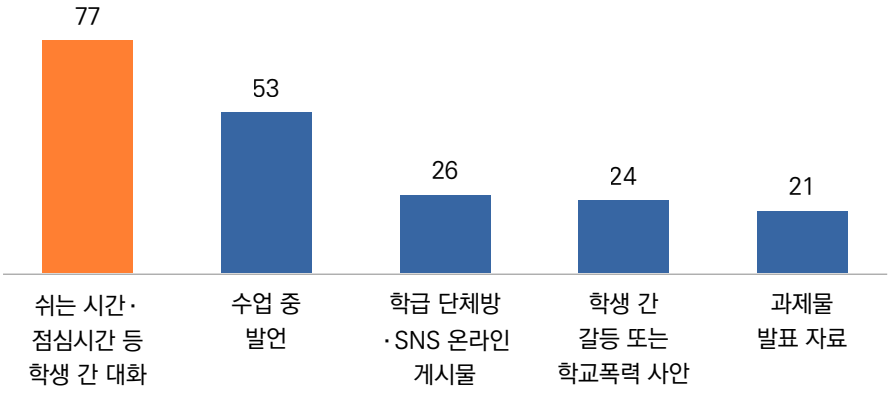
*5점 척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학생들의 혐오 표현, 수업 중 발언(53%)까지 일상화!

-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접한 구체적인 상황을 물은 결과, ‘쉬는 시간 · 점심시간 등 학생 간 사적인 대화’가 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업 중 발언’(53%), ‘학급 단체방 · SNS 온라인 게시물’(26%) 등의 순이었으며, ‘과제물 발표 자료’에서 접한 경우도 21%였다.
- 이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 수업과 과제 등 공적인 학습 공간에까지 혐오 표현이 일상화되어 있는 학교 현실을 보여준다.

[그림] 혐오 표현을 접한 구체적 상황 (교사, 중복응답, 상위 5개, N=1,1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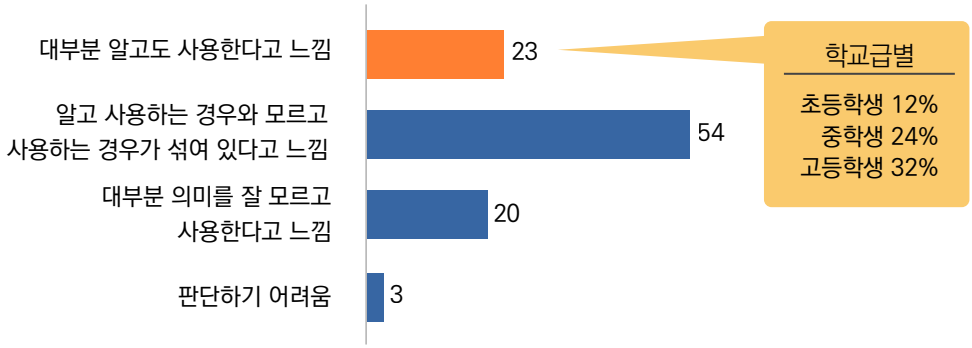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 · 역사왜곡 표현 교사 ·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6~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고등학생 3명 중 1명, 혐오 표현 의미 알면서도 사용!

- 학생들이 혐오 표현의 의미를 인지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전체 교사의 54%는 ‘알고 사용하는 경우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섞여 있다’고 응답했고, ‘대부분 알고도 사용한다’는 23%였다.
- 특히 ‘대부분 알고도 사용한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12%, 중학생 24%, 고등학생 32%로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뚜렷이 증가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혐오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학생들의 혐오 표현 의미 인지 여부 (교사, N=1,1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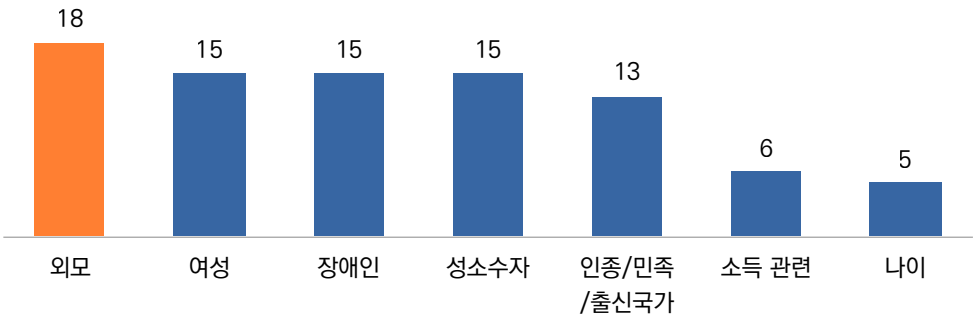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 · 역사왜곡 표현 교사 ·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6~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02 [청소년 혐오 표현 유형 및 원인]

교사가 주로 접하는 혐오 표현, 외모부터 사회적 약자까지 광범위!

- 교사가 주로 접하는 혐오 표현 유형으로는 '외모' 관련이 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성'(15%), '장애인'(15%), '성소수자'(15%)가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 외모 관련 혐오 표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은 신체적 변화가 활발하고, 외모에 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기 발달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교사가 주로 접하는 혐오 표현 유형 (교사, 중복응답, 상위 7개, N=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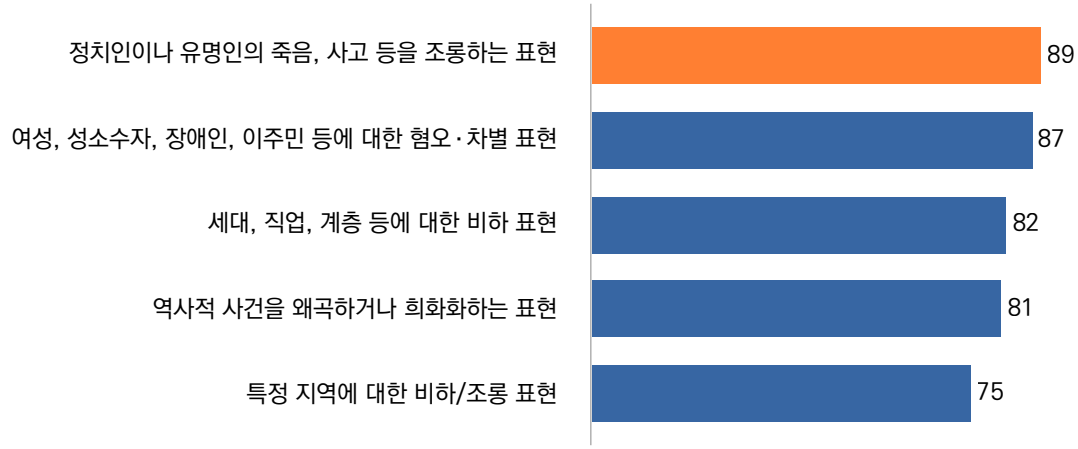


※출처 : 한국다양성연구소, '청소년 혐오 표현 대응 인식-실행 간극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 2025.11.01.(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5.07.11.~07.25.)

교사 10명 중 8명 이상, '유명인의 죽음 조롱' 등 다양한 혐오 접했다!

- 이번에는 최근 1년간 교사가 접한 혐오 표현의 유형별 경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사 10명 중 9명에 달하는 89%가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죽음, 사고 등을 조롱하는 표현'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87%), '세대·직업·계층 비하'(82%), '역사적 사건 왜곡·희화화'(81%) 등을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실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그림] 최근 1년간 접한 학생들의 혐오 · 역사왜곡 표현 유형 (교사, '접한 적 있음' 비율, %)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 · 역사왜곡 표현 교사 ·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6~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교실 내 혐오 표현, 고인 조롱부터 소수자 비하까지 '놀이'처럼 사용!

- 교사가 직접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학생들의 혐오 표현 사례를 살펴보면 고인 조롱, 지역 비하와 역사왜곡, 여성 혐오 등이 교실 현장에서 일종의 놀이나 밈(Meme)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직접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혐오 표현 사례 (교사, 주관식 문항, N=535)

〈고인의 죽음 조롱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조롱)〉

"선생님, 제가 선물 드릴게요. 부엉이 케이크요."

"과학 수업시간에 중력을 학습할 때 떨어지는 물체를 보며 '운지'라고 하고 키득거립니다."

"미래 명함만들기 수행평가에 노무현대통령의 사진과 코알라 게임, 운지 캠핑장, 서거일으로 전화번호를 만들어 명함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지역 비하와 5·18 등 역사왜곡〉

"전라도에 가려면 여권들고 가야한다, 전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홍어홍어 거리며 키득댑니다."

"5·18민주화운동을 광주폭동으로, 탱크데이 사태 이후 탱크데이 화이팅을 수업시간에 외칩니다."

〈여성 혐오〉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푸씨, 기모치, 선생님 페미에요? 등등 성차별적 발언을 합니다."

〈소수자·장애인 혐오〉

"친구간 갈등 상황에서 욕으로 장애인이 아닌 친구에게 장애인이라 부르며 사용하거나 실제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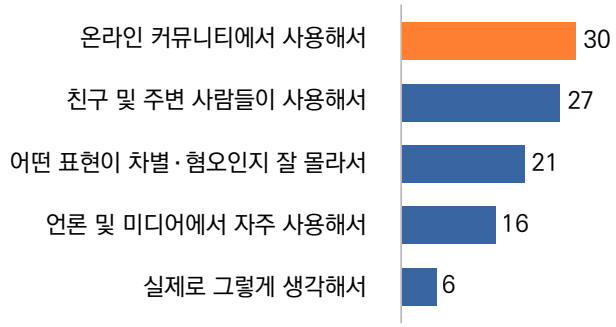
"체육시간에 경기 승부 관련 화 내는 친구에게 분노조절장애새끼라고 부르며 상대방 친구와 장애인을 동시에 비하했습니다."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 · 역사왜곡 표현 교사 ·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6~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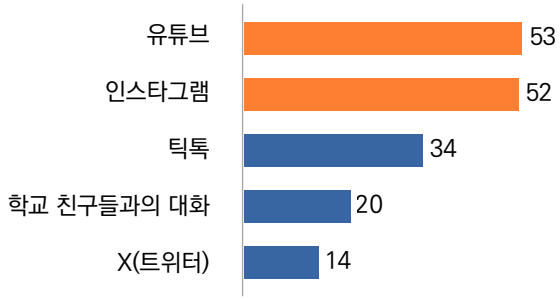
청소년 혐오 표현 원인, '온라인 플랫폼'과 '친구' 영향!

- 교사들은 청소년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주된 원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30%)와 '친구 및 주변 사람'(27%)의 영향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차별·혐오 표현인지 몰라서'(21%), '언론 및 미디어'(16%) 순이었다.
- 실제로 청소년 혐오 표현·콘텐츠의 주요 접촉 경로를 보면 유튜브(53%)와 인스타그램(52%)이 50%를 넘으며 독보적 1·2위를 차지했고, 틱톡(34%)과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20%)가 뒤를 이었다. 청소년의 혐오 표현이 주로 숏폼·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수용되고 또래 관계를 통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청소년의 혐오 표현 사용 원인 (교사, N=200, %)



[그림] 혐오 표현·콘텐츠의 주요 접촉 경로 (청소년, 상위 5개, N=1,6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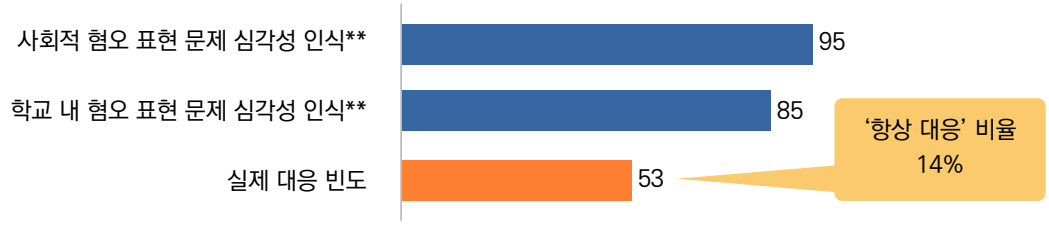
※출처 : 한국다양성연구소, '청소년 혐오 표현 대응 인식-실행 간극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 2025.11.01.(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5.07.11.~07.25.)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 · 역사왜곡 표현 교사 ·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6~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03 [대응 및 과제]

교사 80% 이상 '혐오 표현 심각', 그러나 실제 적극 대응은 14%뿐!

- 교사 대다수는 '사회적 혐오 표현 문제'(95%)와 '학교 내 혐오 표현 문제'(85%)가 심각하다고 높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 그러나 교실 현장에서 혐오 표현에 실제 대응하는 비율은 53%에 그쳤으며, '항상 대응한다'는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교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 지도 및 대응으로 이어지는 데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사회적 혐오 표현 문제 심각성 인식-실행 격차 (교사, N=200, 각 문항별 '매우+약간'/'항상+자주'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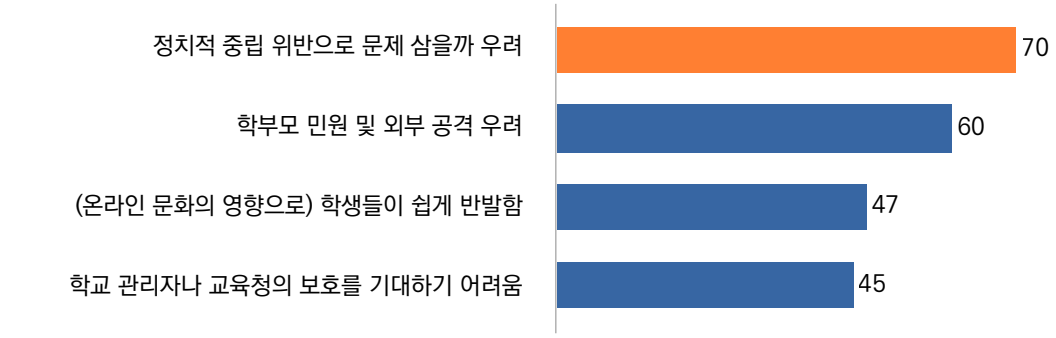


※출처 : 한국다양성연구소, '청소년 혐오 표현 대응 인식-실행 간극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 2025.11.01.(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5.07.11.~07.25.)
*5점 척도
**본래 제시문은 아래와 같음.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교/교실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Note) 본 설문의 '사회적 혐오 표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 폭력, 억압을 유지/강화하는 표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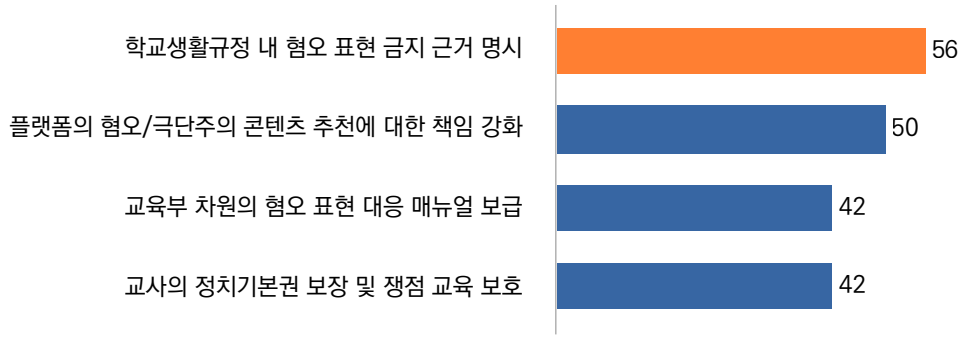
교사 56%, ‘학교생활규정에 혐오 표현 금지 명시’ 필요해!

- 교사들은 혐오 표현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우려’(70%)를 꼽았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외부 공격 우려’(60%), ‘학생들의 반발’(47%), ‘관리자/교육청의 보호 미흡’(45%) 순으로 나타나, 외부 시선과 민원에 대한 부담이 적극적 지도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했다.
-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으로는 ‘학교생활규정 내 금지 근거 명시’(56%)와 ‘플랫폼의 혐오 콘텐츠 추천에 대한 책임 강화’(50%)를 절반 이상이 요구했다. 또 ‘교육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 보급’(42%)과 ‘교사의 쟁점 교육 보호’(42%)가 뒤를 이어,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플랫폼 기업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그림]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요인 (교사, 중복응답, 상위 4개, N=1,109, %)



[그림] 시급한 대책 순위 (교사, 3순위 필수 응답, 상위 4개, N=1,1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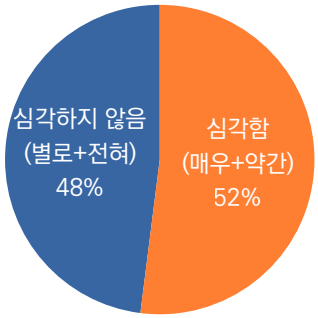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 · 역사왜곡 표현 교사 ·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6~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04 [사회 전반의 혐오 표현 노출과 인식]

국민 절반 이상(52%), '우리 사회 혐오 표현 심각'!

- 지금까지 청소년의 혐오 표현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후로는 일반국민의 혐오 표현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지 들여다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인권의식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심각성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52%)이 '심각하다(매우+약간)'고 응답했다.

[그림]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의 심각성 인식
(일반국민, N=17,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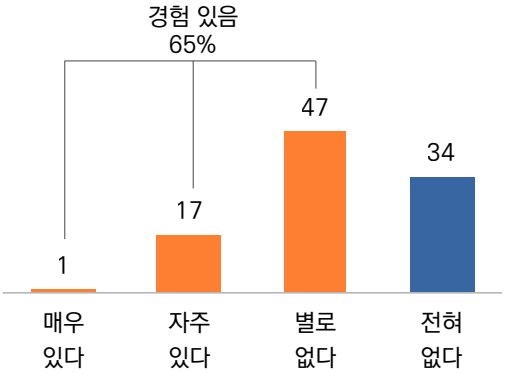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2025.11.(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7,045명, 면접조사, 2025.07.~202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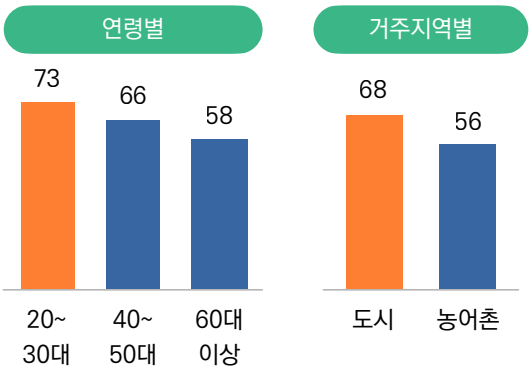
성인 국민 3명 중 2명, 최근 1년간 혐오 표현 접했다!

- 최근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국민의 65%로 나타났다. 즉, 성인 국민 3명 중 2명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에서 혐오 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
- 특히 혐오 표현 노출 경험은 20~30대 73%, 40~50대 66%, 60대 이상 58%로,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 표현을 접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 거주자도 68%로 농어촌 거주자 56%보다 12%p 높았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와 커뮤니티 이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젊은 층과 도시 거주자가 혐오 표현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최근 1년간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
(일반국민, N=17,045, %)



[그림] 응답자 특성별 최근 1년간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 있음' 비율 (일반국민, N=17,045,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2025.11.(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7,045명, 면접조사, 2025.07.~2025.08.)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교사 10명 중 9명, '학생들의 혐오 표현' 경험!

최근 1년간 학생들의 발언, 발표 등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을 물은 결과, 교사 대다수인 89%가 직접 목격(74%) 또는 동료 교사·학생을 통해 전해 들은 것(15%)으로 나타났다.

2. 학생들의 혐오 표현, 수업 중 발언(53%)까지 일상화!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접한 구체적인 상황을 물은 결과,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 학생 간 사적인 대화'가 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업 중 발언'(53%), '학급 단체방·SNS 온라인 게시물'(26%) 등의 순이었다.

3. 교사 80% 이상 '혐오 표현 심각', 그러나 실제 적극 대응은 14%뿐!

교사 대다수는 '사회적 혐오 표현 문제'(95%)와 '학교 내 혐오 표현 문제'(85%)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높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교실 현장에서 혐오 표현에 '항상 대응한다'는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김지혜)

관련 성경 구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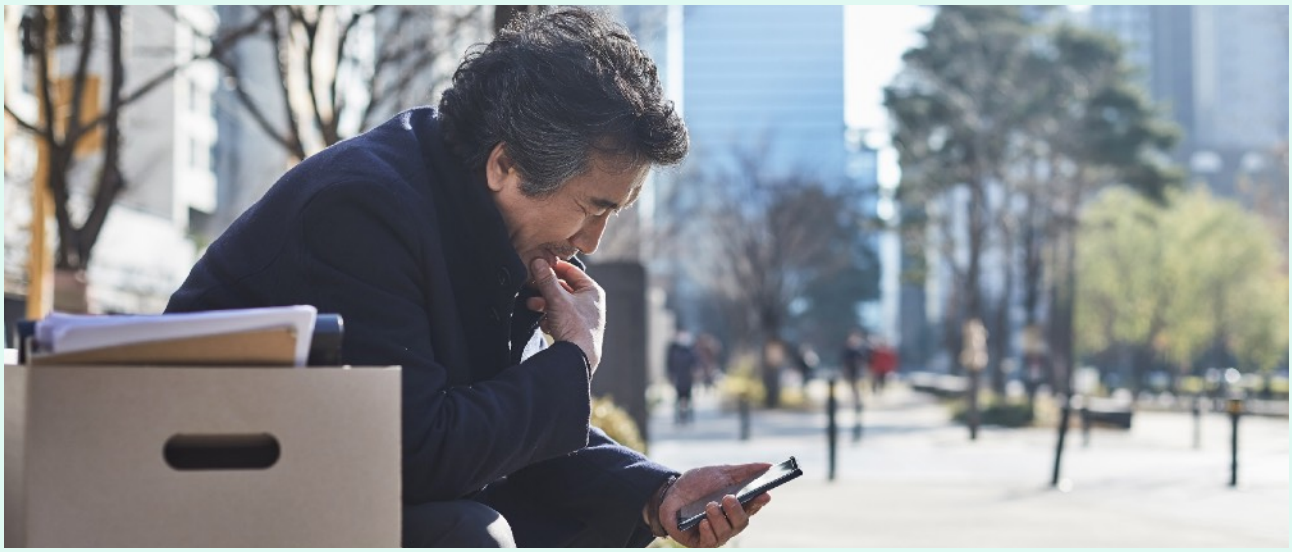
목회 적용점

교실 현장에서 혐오 표현이 단순한 욕설을 넘어 온라인 밈(Meme)과 또래 간 '놀이' 형태로 사용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다. 특히 청소년들이 혐오 표현의 의미와 문제점을 알면서도 장난이나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혐오를 재미있는 콘텐츠로 재생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디어 매체, 그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또래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 청소년의 혐오 언어를 개별 학생의 일탈이나 인성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혐오 표현이 한 사람의 존엄성과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가르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언어·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청소년들이 서로를 조롱하거나 낙인찍지 않고,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건강한 또래 문화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

한편 교사 80% 이상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학부모 민원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학교 내 혐오 표현 대응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의 사명감이나 지도 역량에만 의존해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다. 교사가 보호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과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와 가정, 교회, 플랫폼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범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혐오 언어에 무감각해진 청소년 세대를 존중과 공감의 언어로 이끄는 일은 교사나 교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1. 한국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소득 공백



2.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 후 취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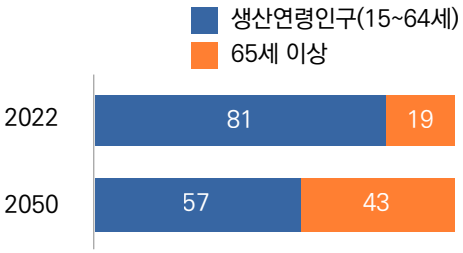


[한국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소득 공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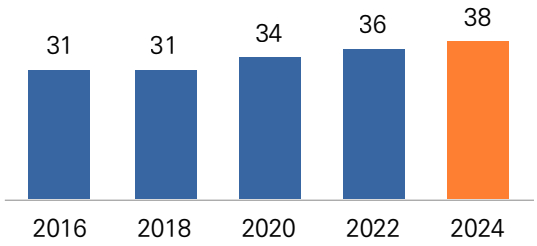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경제활동 중'!

- 한국 고령층의 고용률과 퇴직 실태를 살펴본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22년 81%에서 2050년에는 57%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19%에서 2050년 43%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16년 31%였던 고령층의 고용률은 2024년에는 38%까지 상승했다. 기대여명 증가와 생계 등의 요인으로 이제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거나 재취업에 나서는 노년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우리나라 인구 분포 변화* (15세 이상, %)



[그림]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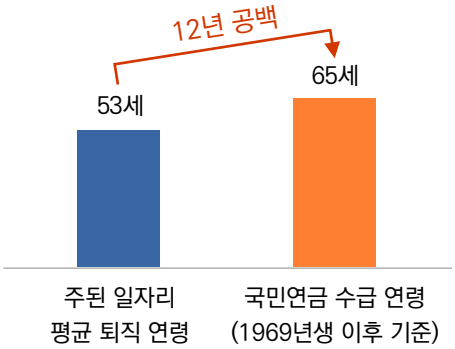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퇴직 후 중 · 고령층의 재취업과 일자리 특성 분석, 2025.12.
*원출처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2~2072)

한국인, 주된 일자리 퇴직 후 12년의 소득 공백 발생!

- 중·고령층(55~79세)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당시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나타났다. 1969년생 이후 기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만 65세인 것을 감안하면, 주된 직장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12년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그림]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2025, 55~79세 취업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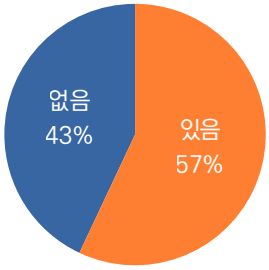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퇴직 후 중·고령층의 재취업과 일자리 특성 분석, 2025.12.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 후 취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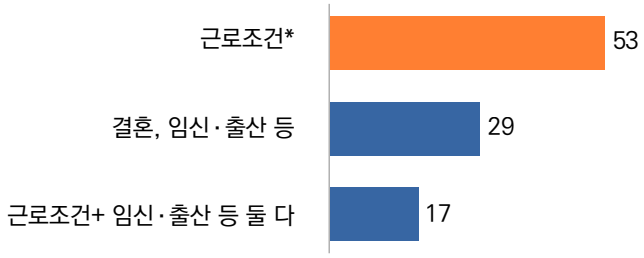
만 19~54세 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 비율, 절반 이상(57%)!

- 성평등가족부에서 최근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을 살펴본다. 만 19~54세 이하 여성 중 전 생애에 걸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이들의 경력단절 이유로는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고, '결혼·임신·출산 등'은 29%, '근로조건과 임신·출산 둘 다'를 꼽은 비율은 17%였다.

[그림] 경력단절 경험 (만19~54세 이하 여성)



[그림] 경력단절 사유 (만19~54세 이하 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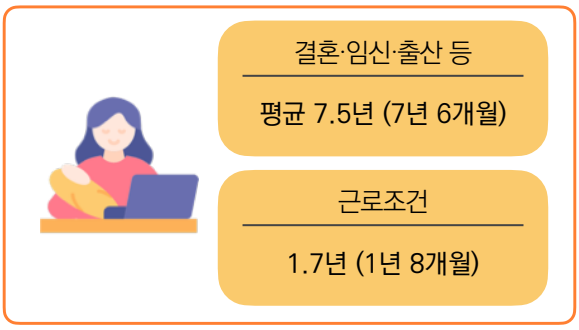


※출처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 2026.07.09.(만 19세~54세 이하 여성 8,177명, 면접 조사)
*근로조건 : 임금, 업무강도, 고용 계약기간 만료, 폐업·권고사직·정리해고 등

'결혼·임신·육아'로 일 그만둔 뒤 재취업까지 '평균 7년 6개월' 걸린다!

- 경력단절 후 재취업까지 소요 기간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결혼·임신·출산·육아'의 경우 평균 7.5년(7년 6개월),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평균 1.7년(1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경력단절 사유별 이후 재취업 소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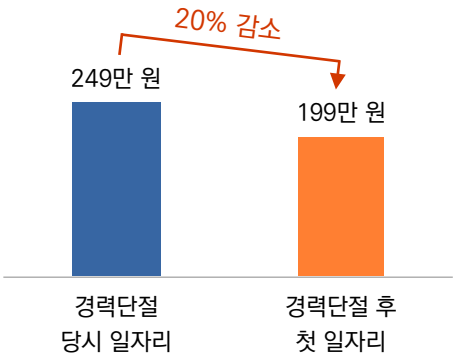


※출처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 2026.07.09.(만 19세~54세 이하 여성 8,177명, 면접 조사)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 이전 대비 80% 수준!

- 경력단절 전·후 월평균 실질임금을 살펴본 결과, 경력단절 당시 249만 원에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에서는 199만 원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전 대비 80% 수준인 셈이다.

[그림] 경력단절 전·후 월평균 실질임금



※출처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 2026.07.09.(만 19세~54세 이하 여성 8,177명, 면접 조사)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70호 (2026년 7월 4주)
- 분야별 정책 평가 (7월 통합 포함)

사회 일반

서울 가도 부모보다 잘살기 어렵다…OECD "계층이동 효과 약화"
연합뉴스_2026.7.27.

"젊은 사람이 빵집 한다카더마는"…청년 사장도 결국 짐 쌌다 [소멸 리포트]
한국경제_2026.7.22.

한국 '세계 여권파워' 2위 유지…美, 20년새 1위→10위
연합뉴스_2026.7.21.

외로움 타는 서울시민, 중독 위험 2배…나도 혹시 알코올 중독?
중앙일보_2026.7.21.

성인 남성 10명 중 4명 '성구매' 했다
여성신문_2026.7.23.

"집 사지말라는것 아니냐"…내집 대신 '캥거루' 택한 청년들, 왜
중앙일보_2026.7.22.

[팩트체크] 100여개국에서 이미 허용했다는데…다시 관심받는 먹는 낙태약
연합뉴스_2026.7.27.

카톡서 내 생일부터 숨겼다…MZ 덮친 '프렌드플레이션'
중앙일보_2026.7.21.

"친구는 2억 벌었다는데…" 주식 열풍이 키운 '투자 우울증'
동아일보_2026.7.27.

[2026 성소수자인식조사] 퀴어축제 운영 및 지원 방식, 찬반 집회에 관한 여론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7.21.

아동 • 청소년 • 청년

"설마 임신 되겠어?" 한국 청소년 3명 중 1명, 피임 안 한다
서울경제_2026.7.18.

주요 10개大 합격생 2%는 검정고시 출신
국민일보_2026.7.26.

청년 10명중 9명 취업 사교육…64% "비용 부담에 경제적 어려움"
연합뉴스_2026.7.23.

"삼수하면 대학 적응 취약…학업 태만 높고 행복감도 낮아"
연합뉴스_2026.7.2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AI 10년 후 연간 25.6만명 대체 가능…전문가·사무직 집중
데이터솜_2026.7.23.

국제 • 환경

“AI도 속는다”…얼굴인식 교란하는 ‘적대적 의류’ 유럽서 확산
동아일보_2026.7.23.

건강

한국인 기대수명 83.4세…그중 11.6년은 건강하지 못하게 산다 [노화설계]
동아일보_2026.7.25.

고혈압도 우울증도 아니었다…국내 치매 위험 요인 1위는? [노화설계]
동아일보_2026.7.22.

딸 결혼식 너무 기뻐 죽을뻔, 응급실행…‘행복 심장 증후군’ 뭐길래
동아일보_2026.7.23.

치매 전염은 아니지만…배우자 발병 땐 다른 배우자 위험 70% ↑ [노화설계]
동아일보_2026.7.22.

기독교 • 종교

“기독 청년 이성 교제, 신앙 숨김·강요 없는 자세를”
국민일보_2026.7.23.

AI가 돕는 목회 일 허용 범위는? 美서 뜨거운 논쟁
국민일보_2026.7.22.

미국 한인교회 담임목사 10명 중 4명 영적 번아웃
국민일보_2026.7.22.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읍, 크리스챤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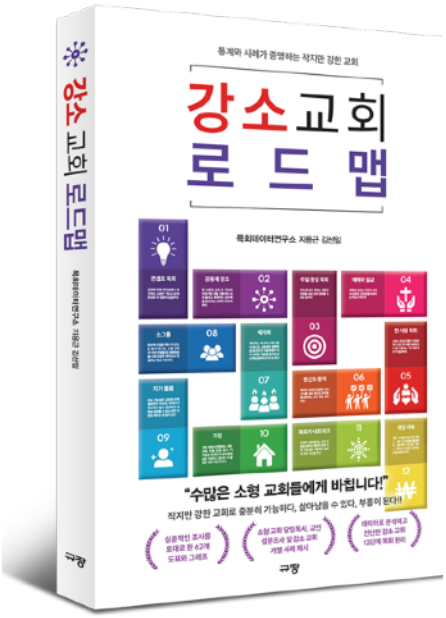
PayPal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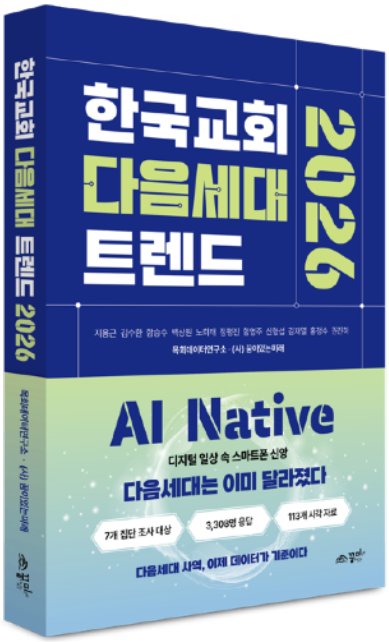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강소교회 로드맵」 (출간일 : 2026.06.30.)

오늘날 한국 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강소교회'로 나아갈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소형교회 담임목사·교인 설문조사 데이터와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강소교회의 12가지 목회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출간일 : 2026.05.20.)
((사)꿈이있는미래 공동 출간)

다음세대 사역의 10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 국내 최초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담임목사 등 총 7개 집단(총 3,308명)을 동시에 다면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책으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후원자 배포)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매주 발간된 〈넘버즈〉를 모아 엮은 책으로 후원자에게만 배포하는 비매품입니다.
- 한국사회 변동상황과 교회 변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연구소 소식. 다음 주 [넘버즈] 휴간 안내

다음 주(8월 4일)는 여름휴가 기간으로 한 주 쉽니다. 〈넘버즈 345호〉는 8월 11일(화)에 발간합니다.

Addr.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기독교TV멀티미디어센터 9층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